

# 여수 올 크루즈 관광객 3배 증가 2만명 찾는다

### 미국·일본·대만 등 7척 입항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홍보 등 시, 대형크루즈 유치 활동 성과

해양휴양관광도시 여수에 지난해 보다 3배 많은 크루즈 관광객이 방문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여수항에 입항할 국제 크루즈선은 일본과 미국 각 1척, 대만 5척 등 모두 7척이다. 탑승객은 2만명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는 4월 9일 일본 피스보트사에서 운영하는 3만5000t급 오션 드림(OCEAN DREAM)호가 여수를 찾는다. 오션 드림호는 2000여명이 승선할 수 있는 고급 크루즈로 승객 1422명과 승무원 520명이 여수를 방문할 예정이다.

5월과 6월에는 길이 330m, 3500여 명이 승선할 수 있는 대만 프린세스 크루즈사의 14만t급 대형크루즈 '마제스틱 프린세스호'가 방문한다.

8월과 9월은 7만t급 중형 크루즈인 '선프린세스호'가, 9월과 11월에는 미국 '아자마라 퀘스트호'와 대만 '코스타네오마리아호'가 잇따라 여수를 찾는다.

크루즈 관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는다. 소비성향이 강한 부유층 관광객이 주로 크루즈 관광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분석에 따르면 한해 국내 크루즈 여객 지출규모를 총 1억1800만달러(1298억원)로 추산했다. 지난 2014년 국내 크루즈 관광객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경제유

발효과도 80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관광 콘손'으로 통하는 중국인 크루즈선 관광객 1인당 지출 비용이 11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제주·부산·인천 등 국내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중국 크루즈선 유치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14년 여수항 확장공사로 광양항을 통해 입항한 중국 크루즈 관광객 1만 6000명이 5일 동안 여수·순천·곡성 등지에서 쓰고 간 돈만 9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9월 중국 기업보상관광단 등 3850명을 태운 초대형 크루즈선이 여수항에 15시간 이상 머무르는 동안 특산품인 방풍초콜렛과 두부과자, 홍삼절편의 60%가 넘는 상품 소진율을 기록했을 정도다.

그러나 사드 파장으로 중국 정부가 한국방문 금지령을 내리면서 여수를 방문하는 중국 크루즈 관광 일정이 전면 취소돼 지난 2016년에는 일본선사의 퍼시픽 비너스호, 오션드림호 등 2척차만 여수에 입항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여수시는 당시 일본, 동남아 등으로 유치 범위를 넓히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여 중국발 위기를 넘겼다. 특히 대만주재 전남도 현지 협력관을 통한 현지 크루즈 선사 유치노력으로 올해 대만 대형 크루즈를 연달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실제 여수시의 발빠른 대처 덕에 지난 2017년 슈퍼스타 아쿠아리우스 2호차 1400명, 지난해 슈퍼스타 바고호 등 3호차 6700여 명, 올해 7호차 2만 여명의 크루즈 관광객 유치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크루즈선 방문 시 문제점으로 지적됐



지난해 여수를 찾은 크루즈 슈퍼스타 바고호.

던 '소풍' 해결을 위해 전남로상가에 사후면세점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81곳의 사후면세점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사후면세점 특화거리는 중국 파워블로거 팸투어부터 투어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시는 최근 단체관광에서 개별자유여행으로 변하는 관광트렌드에 맞춰 팸투어와 SNS를 이용한 홍보 강화에도 행정력을 쏟고 있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크루즈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게 특산품 판매장 확대, 전통시장과 사후면세점 특화 거리 방문 유도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에는 전남상가 사후면세점 면세사업자 교육과 크루즈터미널 회의실에서 출입국 기관 등과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처럼 여수시의 적극적 행보를 통한 크루즈 관

객 유치와 함께 거시적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순신 유적지 등 여수만의 특화된 콘텐츠 개발과 전문 쇼핑센터 등 크루즈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한편,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고재의 관광문화교육국장은 "15만t급 대형 크루즈선 접안까지 가능한 여수 엑스포항을 보유한 여수는 국내 대표 크루즈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만큼 크루즈선 유치와 함께 크루즈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가겠다"며 "여수 밤바다 등 대표 콘텐츠와 크루즈 인프라 확충을 통해 크루즈 관광객들이 여수의 참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저소득층 가스배관 설치 분담금 면제 여수시-대화도시가스 업무협약

### 세대 도시가스 인입배관 분담금 면제 업무협약 시가스·상수도 해저관공사 공동시행



저소득 세대 가스공급을 신청하면 배관 설치 분담금이 면제된다.

여수시는 대화도시가스(주)와 장애인과 저소득 세대의 가스 배관 설치 분담금 면제를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협약에 따라 기존에 대화도시가스와 사용자가 5대5로 부담하던 도시가스 배관 설치 비용을 대화도시가스 측에서 전액 부담하면서 저소득 세대는 분담금 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면제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의 1-3급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차상위계층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돌산지역 상수도·도시가스 해저관공사 공동 시행에 대한 업무 협약도 함께 진행됐다. 협약서에는 ▲해저관로 시설설계 용역·공사 공동 추진 ▲용역·공사비 상수도관(500mm)과 도시가스관(200mm) 지름 비율로 부담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유지보수 등 제반관리비용 배관 지름 비율 등에 따라 분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면제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의 1-3급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차상위계층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돌산지역 상수도·도시가스 해저관공사 공동 시행에 대한 업무 협약도 함께 진행됐다. 협약서에는 ▲해저관로 시설설계 용역·공사 공동 추진 ▲용역·공사비 상수도관(500mm)과 도시가스관(200mm) 지름 비율로 부담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유지보수 등 제반관리비용 배관 지름 비율 등에 따라 분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전남대학교 중화학설비안전센터는 최근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안전산업(OM&S) 고도화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남대학교 중화학설비안전센터 제공>

## 전남대 중화학설비안전센터 10주년

### 산학 공동연구로 기술개발 108건·특허출원 39건 지역 중기 기술경쟁력 높이고 고용창출 성과 특출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전남대학교 중화학설비안전센터가 남다른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 고용창출은 물론 특허 출원을 앞세운 기술 개발 성과와 장비구축 등 중화학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질적인 성과들을 특출히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중화학설비안전센터는 지난 2009년 8월 전남도와 여수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 중화학산업단지의 생산설비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안전센터는 그동안 안전 관리 기술 혁신을 통해 여수국가산단 기업을 비롯한 여수·광양만권 석유화학·철강·에너지기업과 안전(설비) 관리 서비스 전문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실제 중화학설비안전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위상배열초음파탐상기(OmniScan MX2) 등 총 42건(150억 상당)의 장비구축으로 29만 3692시간의 장비이용 성과를 거뒀다. 116건의 장비활용 교육으로 기업의 전문성도 높였다.

기업체의 능력개선과 기술력 향상, 기술이전 등을 위한 산학공동연구과제를 통해 총 108건의 기술 개발 성과를 거두는가 하면 고효상도(Magnetic Flux Leakage) 개발 등 39건의 특허출원과 26건의 특허등록도 마쳤다.

132편의 논문발표와 76건의 논문게재 등 안전 설비 구축을 위한 뚜렷한 연구 성과도 이어졌다. 여기에 연구과제 성과를 통해 여수산단 기업 등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폐촉매 제거장치(RSD) 등 24개의 시작품을 제작해 기업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안전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재직자 중심 인력양성 부문에서도 419곳의 참여기업에 강좌 수

198건, 교육생 3627명이 화공공정 등 엔지니어 능력향상 교육을 이수하는 성과를 냈다.

이밖에 연구그룹 세미나·워크숍 149건 개최와 관련기관 MOU체결 48건, 기술지도 203건과 기술이전 9건을 통한 사업화 성과도 거뒀다.

일자리창출 성과로는 중화학설비 관련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지원 13곳과 이에 따른 신규고용인원 170명을 창출했다.

또 여수시·전남도 지원 스마트플랜트 엔지니어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취업지원 교육활동을 통한 107명의 취업과 매출액 증대에 따른 고용창출효과 산정 인원 812명 등 총 1089명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거뒀다.

이처럼 뚜렷한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중화학설비 안전센터의 성과와 향후 비전 마련을 위한 토론회도 열렸다.

지난 6일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석유화학 플랜트 안전산업(OM&S) 고도화 방향'을 주제로 석유화학·철강 플랜트 안전기술 고도화 필요성과 중화학설비안전센터 2단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의 필요성, 안전 관리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R&D, 노후 공정설비 안전 인증 서비스 등 센터의 미래 비전에 대한 의견들이 모아졌다.

김이곤 중화학설비안전센터 센터장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한 후원을 지속해 준 여수시와 전남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사업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준 높은 안전관리 서비스 기술 지원을 통해 지역 대표 중화학설비 안전센터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2019 WORLD WATER DAY

## 세계 물의 날

### 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환경부**  
**세계 물의 날 기념식**  
 2019. 3. 22.(금) 14:00 ~  
 대구 EXCO 오디토리움

**영산강유역환경청**  
**세계 물의 날 기념식&토론회**  
 2019. 3. 22.(금) 13:00 ~16:00  
 전라남도 곡성군 기차마을 내 로즈홀